

##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박해전 (고신대학교 재활복지과 교수)

## I. 서론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형성하고 우리의 행동에 관여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여 삶의 모든 행보에 관여할 것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활발히 기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확고히 지니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은 기독교대학이라는 학교현장에서 학교생활과 교육을 통해 확립해가며, 그렇게 형성된 자아정체성은 앞으로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능하고 활성화 된다. 이러한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은 기독교대학의 본질적 존재 이유로서 매우 중요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기독교대학은 교육과 모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데에 주력하여야만 한다. 기독교대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을 통해 깊이 있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의식(self-identity)을 형성하도록 인도해야 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교육을 통해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게 하여, 졸업 후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완벽히 수행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다수의 기독교대학은 심각한 자아정체감의 혼란상태에 놓여 있다고 기술된다(강희천, 2001; 350). 기독교대학을 포함한 거의 모든 대학은 “상아탑의 지식” 보다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실용적 지식·응용적 지식”을 주로 소개하며 개발하는 기관으로 그 주요 기능을 변화시키고 있다.<sup>95)</sup> 이러한 변화 과정은 기독교대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 결과 기독교대학의 존립 이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과 회의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sup>96)</sup> 일반(비기독교)대학과 견주어 볼 때, 기독교대학은 더 이상 기독교적 특수 공동체가 아니라,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과 사회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실용(유용)적 지식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추구하는 수많은 대학 중 한 부분으로 전환되고 있는 듯 보이며, 바로 이 같은 일련의 변화과정 속에서 자아정체감의 혼란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97)</sup>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이 현재와 같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외적으로는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무한히 밀려오는 다양한 문화와 이념을 기독교세계관의 독특한 틀을 통해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가치관에 혼란을 겪어 왔고 내적으로는 대학의 규모가 급속히

95) Richard T. Hughes, "Introduction,"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Strategies for Succ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eds. Richard T. Hughes and William B. Adnan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1-9.

96) David, S. Dockery & David P. Gushee eds., *The Future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9). 참조.

97) Michael B. Katz, *Reconstructing American Educ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169-177

대형화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설립이념과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독특한 기독교교육의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명호, 2003; 6). 고교평준화 제도로 인한 학교의 학생 선발권의 제약이나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는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법적규제와 입시교육이 점차 강화되고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기독교학교들이 신앙교육을 실시하기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신앙을 삶의 총체적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종교적 영역의 문제로 이원화시키는 경향이 강한 한국교회의 영향이 기독교학교에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외부적 상황에 대해 기독교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시대에 부합되는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들을 기울였는지는 의문이다(강영택, 2012; 8).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기독교학교에 기대하는 바는 초기 기독교학교 당시와는 물론 다르다.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업을 기독교학교가 수행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오늘날 기독교학교가 시대적 과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의 위기와 관계한다.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설립동기인 신앙교육이 점차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이 협소하게 되어 신앙교육이 종교적 영역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기독교학교의 차별성은 학교에서 가끔씩 이루어지는 종교행사에 의해서만 확인될 따름이다. 이는 과거 초기 기독교학교들이 보여주었던 신앙과 민족정신이 통합된 신앙교육의 총체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면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학교는 초기 기독교학교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었던 높은 사회적 공헌을 따르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인정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이 초기 기독교학교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신앙과 사회적 책무성이 통합된 신앙교육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학교들은 분명 정체성의 위기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강영택, 2012). 특히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본 연구는 오늘날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의 문제를 기독교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의식 정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기독교대학의 존립이유를 다시금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기독교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재고하며, 기독교대학이 그리스도 중심의 자아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며, 그에 바탕을 둔 학문과 가치관을 형성하여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든든히 하기를 바란다.

## II. 문헌고찰

### 1. 기독교대학

#### 1) 기독교대학의 정의

‘기독교대학’이라는 용어는 ‘기독교학교’와 ‘기독교 대학교’ 및 ‘기독교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용어들과 상호교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독교적인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설립된 학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초기에 외국선교사나 선교기관에 의하여 세워진 학교가 있다. 대개 이를

미션스쿨(mission school)이라고 칭한다. 둘째, 한국교회(개교회, 노회, 총회, 기독교 기관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를 들 수 있다. 대개 이를 기독교학교(christian school)라 칭한다. 셋째, 개인이 기독교 신앙을 학교를 통하여 심어보고자 하는 교육선교의 사명으로 세우게 된 학교가 있다. 이 역시 두 번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독교학교(christian school)라 부른다. 여기서 초창기 전도를 목적으로 한 미션스쿨(mission school)이라는 개념이 후기에 넘어오면서 기독교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라는, 교육에 초점을 둔 학교이해로 변화되었음을 읽어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라는 명칭은 미션스쿨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단순한 종파교육 내지는 교세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교육이라는 고유의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지닌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80년대 초 기독교학교 관계자들의 모임에서 명칭과 관련하여 노회에 소속한 학교로는 미션스쿨로, 그렇지 않은 학교는 크리스천 스쿨로 그 유형을 나누어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별 없이 모두를 기독교학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크리스천 스쿨이나 미션스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는 학교”(church related school) 또는 “교회의 지원을 받는 학교”(church supported school) 또는 “교회가 세운 학교”(church founded school)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기독교학교라는 명칭은 사립학교라는 말과 더불어 이해되어야 한다. 교육법상 기독교학교는 사립학교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란 널리 사인 혹은 사업인이 설립하는 학교를 일컫는다. 이는 공립학교의 보조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제도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명확하게 구별된 사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자적 교육이념에 의하여 국, 공립학교가 할 수 없는 자율적이고도 특색 있는 교육을 가능케 하는데 그 존재의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맞은 일반학교의 대안으로써의 사립학교라는데 기독교학교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립학교로써의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이 국가주도적인 교육정책에 의하여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홍정근, 1993).

이와 같이 ‘기독교대학’이라는 용어에 미션스쿨과 여타형태의 ‘기독교대학’을 다 포함 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규정한다면 특별히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 기독교대학은 미션스쿨이나 신학교 등과는 구별된다.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대학이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과 다양한 측면들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개설분야가 일반대학처럼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몇몇 교회관련 학과만을 가르치는 신학교(seminary)나 성경학교(bible college)와 다르며 기독교대학이라 불리면서도 채플과 같은 소위 종교적인 활동들을 추가하는 외에는 행정과 연구, 가르침을 모든 면에서 일반대학과 다를 바 없는 미션스쿨과도 다르다.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기독교대학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학문의 제 분야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다양한 법칙과 측면에 대한 연구임을 인식하여 모든 학문을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독교대학이라는 개념은 개혁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대학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기독교대학은 그 뚜렷한 목적이 신앙과 학문 그리고 신앙과 문명의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통합(integration)을 가능케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고등교육에 있어서 기독교대학만이 가지는 독특한 과업이다(아더 홈즈, 1990). 기독교학교는 하퍼(Norman Harper)가 말한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학문과 교육의 공동체이다. 하퍼는 기독교학교의 본질적 성격을 기독교

교육철학을 매일의 수업에 적용하는 교사들, 하나님 중심의 역동적이고 통합된 교육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학교정책을 수립하는 행정으로 요약하고 있다.

기독교학교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모든 교육활동과 지원체계가 가동되는 학교라고 말할 수 있다(harper, 1984). 이승구(2006)는 기독교학교를 “그리스도인 교사와 학생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교육과정(curriculum)을 가지고 교수하고 학습하는 기독교적인 학습의 장, 혹은 기독교적인 학문 공동체”라고 정의한다. 김성수 외(1998)는 기독교대학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교적 학문연구에 기초한 기독교적 고등교육과 기독교적 문화 창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유능한 기독교적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공동체로 보았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은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학문을 연구, 교수하며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많은 기독교대학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대학교육을 외면함으로 그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 있지만 그들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일변도의 획일화된 문교행정에도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적 원리에 따른 학문 연구와 교육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의 대형화로 인해 학생들 각 개인의 신앙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학문과 신앙의 분리를 주장하는 교수들 통해 자신의 전공과목을 성경적으로 공부 할 줄 아는 학생들이 길러질 수는 없었다. 기독교대학에서 성경적 원리를 따라 학문을 배움으로 신앙이라는 뿌리위에서 튼튼한 학문의 등치와 가치를 세워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균형 잡힌 영적성장을 이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적 조망에 의해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독교대학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2)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기독교대학의 사명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어떠한 것도 없다.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이란 특정적으로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는 교육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어떠한 것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이란 기독교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세계관이 깊숙한 곳 까지 배어 있는 교과목과 교육과정을 특징으로 하면서 그리스도 없이는 어떠한 사실이나 이론, 주제들도 온전히 이해하거나 그 진가를 알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Duane Litfin, 2011). 그리스도 중심이란 우리의 생각이 뚜렷하게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삶과 학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교육과정의 모든 부문에서, 모든 학문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생각하면서 체계적으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찾으려는 일이 우리가 유일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그리스도 중심의 대학 교육기관이 되기를 열망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은 어떠한 것도 없으며 그분이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인식하에 우리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통해 성숙해가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 중심의 사명을 스스로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대학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행정부서와 직원들이 그리고 교수진들이 확고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비전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삶과 사역에서 그 비전을 실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기독교대학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비전을 명확히 밝히고 남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소명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소명보다 훨씬 더 집약적이다. 기독교대학은 또한 구호단체나 사회봉사 단체, 또는 선교단체도 아니다. 기독교대학의 일차적인 소명은 복음전도에 중사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자연재해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대학의 주된 임무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대학이 설립된 이유이고, 이것이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기독교대학을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기독교대학에 속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기독교대학의 주요한 소명이다. 그리고 기독교대학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일차적인 방법은 기독교대학이 길러낸 학생들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의 교육적 과제에는 포괄적인 소명의 모든 영역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포함되며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실제 현실세계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부문과 관련해서 교육시켜야 한다. 따라서 실제 현실세계의 사안들을 기독교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중추적인 소명은 학생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통해 기독교대학은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기독교대학의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이에 대해 두안 리트핀 교수(2011)는 제 5회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인문대학(Christian liberal art college)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생물학, 경제학, 철학, 역사학을 가르칠 때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기독교대학에서 교육보다는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기독교대학이 세속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세속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교실에서 가르치는 과목과 커리큘럼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심사상이 없기 때문에 세속화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경제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대학은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사상이 각 학문분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세속화되는 이유는 학교 행정 시스템에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고, 각 교수가 가르치고 연구하는 내용에 그리스도 중심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 2. 기독교인의 자아정체성

### 1) 자아정체성

자아정체성이란 우리자신의 독특성 즉 성격의 핵심요소로서 자기라는 것, 자기의 존재증명, 진정한 자기, 주체성 등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자아정체감은 미래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므로 개인의 잠재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홍정근, 1993). 이와 같은 자아정체성은 성취와 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고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개정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라고 보았다.<sup>98)</sup> 이와 같이 자아정체감은 ‘나는 나다’라는 실존의식을 의미하고 ‘나는 나다’는 존재가 누구로부터의 간섭도 배제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를 지님과 동시에 오직 나 혼자라는 근원적인 소외감과 불안감을 수반하고 있다(문

98) E. H.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Norton, 1964). 24

채욱, 2012).

에릭슨(1968)은 개인이 자신은 타인과 다른 고유한 존재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자아정체감을 정의하고 있으며 Erikson은 자아정체성을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객관적 측면의 정체성은 집단 정체성, 국가 정체성을 일컫는 것으로 어떤 집단의 역사, 전통, 가치관에 자기를 귀속시켜 얻게 되는 소속감을 가리킨다. 반면 주관적 측면의 정체감은 개별적 정체감(individual identity)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적 정체감, 자아정체성으로 구분 짓는다.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은 개인이 처한 상황과 시대에 의하여 다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할지라도 “김 아무개로써의 나”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말한다. 즉, 개인적 정체성이란 자신의 동질성과 지속성에 대한 느낌(feeling of sameness and continuity of self)인 것이다. 개인적 정체감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서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나 동질적이고 연속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한 단순한 인식 이상을 의미한다. 즉, 자아정체성이란 대인관계, 역할, 목표, 가치 및 이념에 있어서 스스로 인식하여 갖게 되는 ‘자기다움’에 대한 인식이다. 자신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되어지는 자기통합에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과 ‘무의식적인 노력’인 것이다. 이렇듯 자아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내적인 확고함과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통합되어져 간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 또한 자아정체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조화와 통합의 과정을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이수남, 2009).

또한 Dignan(1965)은 자아정체성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발달된 것으로서 자기를 추상하는 자기상(self-image)들의 복합체이며 생태적으로 미리 어떤 기제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의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대상에서 추출되고 통합된 자기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성 요인은 “자기의 감각 독자성, 자기수용, 역할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대인관계”이며 자아정체성의 형성은 자기상을 규정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sup>99)</sup>

자아정체성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찾아 결국 나의 삶에서의 의사결정자는 ‘나’임을 의미한다. 또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다. 이러한 자아정체성은 특히 청소년기가 중요하며, 따라서 대학이 갖는 기능은 이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정체성을 갖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깨닫게 해주고 삶의 본질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며, 학생 스스로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자아정체감은 자신과 인생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그에 대한 답변을 확립해가는 힘(동인, 결정체)이라고 할 수 있다.

## 2) 기독교인의 자아정체성

정체성이란 인간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자극을 받으며, 자신들의 삶을 새로운 방법으로 보고, 느끼며, 새로운 방법으로 꿈꾸고, 계획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에 맞추어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귀중한 능력의 뒷받침이 되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정체성은 자신에 관해서 통합된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개념이다. 자아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인간관, 세계관, 미래관 등에 대해 비교

99) M. H. Dignan. Ego identity and mater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5), (1965), 476-83.

적 명료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런 이해가 지속성과 통합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개인의 이상과 행동 및 사회적 역할을 통합하는 자아의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자아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종교적 신앙의 역할은 매우 크고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된다. 그들이 갖게 되는 신앙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낯 설은 주장은 아닐 것이다.

더 나아가 종교가 갖고 있는 인간 실존과의 연관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종교의 빛에 비추어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재해석하게 되며, 그와 함께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삶의 태도를 재정립하도록 해준다. 종교는 정체성 형성이라는 중요하고도 힘든 과제를 안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대학교 교육에서 특히 이 시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그 주제 선택으로부터 교육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과 밀착되어 지도를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자아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인물인가, 아닌가?’ 와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자아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기 존재의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극단적인 현상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으며, 타인의 평가는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님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경적 자아정체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즉 청소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었다(마가복음 10: 45). 예수님은 우리들이 죄의 저주와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분은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 사상은 인간의 정체성을 견고히 할 수 있는데, 이신칭의 사상의 핵심은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얻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며, 우리의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롯된다(빌립보서 3: 8~9)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청소년의 성경적 정체성은 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간의 정체성에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간 속의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었다는 것이며 셋째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죄와 죽음으로 물든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의 결과로 생겨난 죄의 심각성과 파괴성으로부터 청소년이 진정한 자아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각자의 자아정체성은 자신이 닮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대상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닮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은 자기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성경적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조기민, 2009; 38). 이와 같이 기독교 정체성을 이원규(2003)와 신영재(2009)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뜻을 행함으로서 자기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람으로, 김정우(2009)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김현숙(2003)은 기독교 정체성을 외부

적 환경의 변화와 자연발생적인 신체적·정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동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상징적구조로 부모나 신앙공동체를 통해 일반적으로 전수될 수 있는 ‘제한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각 개인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새로운 기독교 정체성을 형성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긍정적인 차원’으로 정의하였다(김미경, 2011; 213). 이렇게 볼 때 기독교대학의 교육의 본질은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과 교육을 찾아주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기독교대학과 자아정체성의 의미를 정의하고, 다음으로 기독교대학의 학생들의 자아정체성을 측정하고자 관련 척도를 개발하였다. 다음 부산·경남권에 있는 기독교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연구기간 및 방법

2012년 5월부터 이론적 고찰 등을 실시하고 설문지를 개발하여 9월에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경남지역의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의 표집은 비확률적 표집으로 임의표집을 실시하였다. 고신대학교 재향복지학과에 다니는 학생들과 교수, 강사들의 주변 사람 중 기독교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500부 배포 중 총 434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를 통계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였다. 정명희(2010)의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역할모델에 관한 연구”, 윤성균(2009)의 “부산 기독교학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 김효숙(2003)의 “현대사회와 기독교적 자아정체성”, 윤주희(1985)의 “한국 중등기독교학교에 대한 연구-역사적 고찰 및 종교교육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변세권(2001)의 “기독교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 김미경(2003)의 “기독교대학생의 기독교저어체성 확립을 위한 삶의 접근요인과 과정 탐색” 등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 기독교 정체성 등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일반적 사항

##### 1) 연구대상자 분석

연구대상자는 총 434명으로 남학생 151명(34.8%), 여학생 283명(65.2%)으로 나타났다. 학년



은 1학년 83명(19.1%), 2학년 137명(31.6%), 3학년 133명(30.6%), 4학년 75명(17.3%), 대학원생 2명, 휴학생 4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종교는 기독교 262명(60.5%), 천주교 15명(3.5%), 불교 21명(4.8%), 무교 132명(30.5%)이었다. 지역으로는 부산 388명, 경남 31명, 경북 3명, 기타 8명이 참여하였고, 학교 학생 수의 비율은 4,000명 이하 121명(36.0%), 4,000명 이상~10,000명 105명(31.3%), 10,001명 이상 110명(32.7%)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명, %)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51	34.8	신급	원입	5	1.9
	여자	283	65.2		유아세례	16	5.9
학년	1학년	83	19.1		입교	76	28.3
	2학년	137	31.6		학습	19	7.1
	3학년	133	30.6		세례	130	48.3
	4학년	75	17.3		모르겠음	23	8.6
	대학원생	2	0.5	지역	부산	388	90.2
	휴학생	4	0.9		경남	31	7.2
종교	기독교	262	60.5		경북	3	0.7
	천주교	15	3.5		기타	8	1.9
	불교	21	4.8	학생수	4000명 이하	121	36.0
	무교	132	30.5		4001~10000명	105	31.3
	기타	3	0.7		10,001~25,000명	74	22.0
			25,000명이상 ~		36	10.7	
합계		434	100.0	합계		434	100.0

결측치는 제외함

## 2) 기독교 대학의 현황 분석

〈표 2〉 경건회 및 성경관련 과목 분석

구분	항목	빈도(명)	백분율(%)
일주일에 경건회 시간	1주일에 1시간	55	13.3
	1주일에 2시간	284	68.6
	1주일에 3시간	2	0.5
	1주일에 4시간이상	3	0.7
	기타(없음 포함)	70	16.9
성경관련 과목 유무	예	344	81.9
	아니오	76	18.1
성경관련 과목 시간	2시간이하	180	55.0
	3~4시간	101	30.9
	5~7시간	13	4.0
	8시간이상	33	0.1

경건회 시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1주일에 2시간이 68.6%, 1시간 13.3%, 없음이 16.9%로 나타나고 있다. 성경과목 유무에서 있음 81.9%, 없음 18.1%였고, 성경관련 과목 시간 수는 2시간 이하 55.0%, 3~4시간 30.9%, 5~7시간 4.0%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적 특성을 띤 교과목이 설립이념에 얼마만큼 부합하는 가의 질문에서 보통이다 40.6%(165명), 접근한다 30.3%(123명), 매우 접근한다 18.0%(73명), 접근하지 못한다 11.1%(45명)로 나타났다. 학교의 교육목표가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영향을 미친다 40.3%(170명), 보통이다 22.5%(95명), 매우 영향을 미친다 15.6%(66명),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1.8%(50명), 9.7%(41명)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의 교육목표가 종교과목이나 예배를 통해서 구체화되는가의 질문에서는 조금 그렇다 33.2%(140명), 보통이다 25.8%(109명), 그렇지 않다 22.7%(96명), 매우 그렇다 18.2%(77명)로 응답하였고, 학교의 성경과목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조금 그렇다 31.5%(130명), 보통이다 28.1%(116명), 그렇지 않다 23.7%(98명), 매우 그렇다 16.7%(69명)이었고, 일반 교과목의 기독교인 자아정체성 형성의 영향 정도는 보통이다 38.1%(159명), 그렇지 않다 27.8%(116명), 조금 그렇다 24.9%(104명), 매우 그렇다 9.1%(38명)로 나타났다.

〈표 3〉 대학이념 및 교과목의 영향정도 분석

구분	항목	빈도(명)	백분율(%)
종교적 특성을 띤 교과목의 설립이념 부합 정도	매우 접근한다	73	18.0
	접근한다	123	30.3
	보통이다	165	40.6
	그렇지 않다	45	11.1
학교의 교육목표의 교육과정의 영향 정도	매우 영향을 미친다	66	15.6
	영향을 미친다	170	40.3
	보통이다	95	22.5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0	11.8
	전혀 미치지 못한다	41	9.7
학교 교육목표의 구체화 정도 (종교과목, 예배 등)	매우 그렇다	77	18.2
	조금 그렇다	140	33.2
	보통이다	109	25.8
	그렇지 않다	96	22.7
성경과목의 기독교 자아정체성에의 영향 정도	매우 그렇다	69	16.7
	조금 그렇다	130	31.5
	보통이다	116	28.1
	그렇지 않다	98	23.7
일반교과목의 기독교 자아정체성에의 영향 정도	매우 그렇다	38	9.1
	조금 그렇다	104	24.9
	보통이다	159	38.1

	그렇지 않다	116	27.8
대학의 이념과 가치의 자아정체성 형성 도움정도	매우 그렇다	49	11.6
	조금 그렇다	119	28.3
	보통이다	145	34.4
	그렇지 않다	108	25.7
대학 이념의 기독교정체성 형성 영향 정도	매우 그렇다	70	16.8
	조금 그렇다	119	28.5
	보통이다	127	30.5
	그렇지 않다	101	24.2

대학의 이념과 가치가 자아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는가에서 보통이다 34.4%(145명), 조금 그렇다 28.3%(119명), 그렇지 않다 25.7%(108명), 매우 그렇다 11.6%(49명)순으로 나타난다. 대학의 이념이 기독교인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서는 보통이다 30.5%(127명), 조금 그렇다 28.5%(119명), 그렇지 않다 24.2%(101명), 매우 그렇다 16.8%(70명)로 응답하였다.

〈표 4〉 기독교대학의 기타 특성 분석

구분	항목	빈도(명)	백분율(%)
기독교대학이라고 느끼는 부분	학교이념	73	18.2
	교양과목	92	22.9
	일반 교과목	10	2.5
	다양한 종교활동(경건회)	140	34.8
	기독교학교인지 모르겠다	60	14.9
	기타	27	6.7
교목실 활동	매우 활발하다	42	10.0
	활발하다	121	28.7
	보통이다	123	29.1
	활발하지 못하다	38	9.0
	잘 모르겠다	98	23.2
동아리 활동	매우 활발하다	57	13.5
	활발하다	130	30.7
	보통이다	119	28.1
	활발하지 못하다	35	8.3
	잘 모르겠다	82	19.4
기독교신자 비율	80%이상	29	6.9
	60~79%	132	31.5
	40~59%	111	26.5
	39%이하	33	7.9
	잘 모르겠음	114	27.2
교수·직원의 성경적 가치관으로의 지도 봉사 정도	매우 그렇다	86	20.4
	조금 그렇다	117	27.8
	보통이다	119	28.3

	그렇지 않다	58	13.8
	전혀 그렇지 않다	41	9.7
전공 학문과 신앙의 통합정도	80%이상	49	11.8
	60~79%	132	31.9
	40~59%	101	24.4
	39%이하	132	31.9
학문 지도 교수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정도	매우 잘 통합한다	66	15.8
	통합한다	140	33.4
	보통이다	120	28.6
	별로 그렇지 않다	40	9.5
	전혀 그렇지 않다	53	12.6
불신학생 반응	협조적이다	30	7.2
	비판적이다	134	32.0
	무관심하다	180	43.0
	모르겠음	75	17.9

기독교대학이라고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는 경건회를 통한 다양한 종교활동 34.8%(140명), 교양과목 22.9%(92명), 학교이념 18.2%(73명), 기독교학교인지 모르겠다 14.9%(60명)로 나타났다. 교목실 활동은 보통이다 29.1%(123명), 활발하다 28.7%(121명), 잘 모르겠다 23.2%(9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활발하다 30.7%(130명), 보통이다 28.1%(130명), 잘 모르겠다 19.4%(82명), 매우 활발하다 13.5%(57명), 활발하지 못하다 8.3%(35명)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신자 비율은 60~79%가 31.5%(132명), 40~59% 26.5%(111명), 잘 모르겠다 27.2%(114명), 39%이하 7.9%(33명), 80%이상 6.9%(29명)이었다. 교수·직원의 성경적 가치관으로서의 지도 봉사 정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보통이다 28.3%(119명), 조금 그렇다 27.8%(117명), 매우 그렇다 20.4%(86명), 그렇지 않다 13.8%(58명), 전혀 그렇지 않다 9.7%(4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공 학문과 신앙의 통합 정도에서는 60~79% 31.9%(132명), 39%이하 31.9%(132명)로 동일하게 응답하였고, 40~59% 24.4%(101명), 80%이상은 11.8%(49명)으로 나타났다. 학문 지도교수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 정도 질문에서는 통합한다 33.4%(140명), 보통이다 28.6%(120명), 매우 잘 통합한다 15.8%(66명), 전혀 그렇지 않다 12.6%(53명), 별로 그렇지 않다 9.5%(40명)이었다. 불신학생의 반응에서는 무관심하다 43.0%(180명), 비판적이다 32.0%(134명), 모르겠다 17.9%(75명), 협조적이다 7.2%(30명)로 나타났다.

### 3) 자아정체성 분석

기독교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의 자아정체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문항 신뢰도는 crambachn 알파 0.844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4점 리커트척도로 조사하였다.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나는 장래 일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싶다'로 평균 3.34(SD=0.60)이었고, '우리 집안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다' 평균 3.28(SD=0.60), 그 다음이 '나는 자기 의견이 분명한 사람을 존경한다'와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주의깊게 듣는 편이다'로 각각 평균이 3.18(SD=0.60), 3.14(SD=0.60)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자아정체성에 관한 질문

번호	항 목 내 용	M	SD	비율(%)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②	전혀 그렇지 않다 ①
1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89	0.70	18.8	52.5	27.8	0.9
2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고 있다.	2.27	0.78	4.2	35.4	44.0	16.4
3	나는 장래 일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싶다.	3.34	0.60	39.8	54.2	5.6	0.2
4	나는 꾸준히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한다.	2.33	0.70	3.9	34.3	52.2	9.5
5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린다.	2.94	0.59	13.5	67.8	17.7	0.9
6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한다.	2.27	0.83	6.7	31.1	44.8	17.4
7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다.	2.01	0.71	1.9	20.2	54.8	23.2
8	모임에 나가면 가급적 사람이 적은 곳이나 구석에 앉는다.	2.10	0.75	3.2	23.4	53.2	20.1
9	나는 현재의 나 자신에 대해 별로 불만이 없다.	2.62	0.80	13.2	42.5	37.4	7.0
10	내가 해 놓은 일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87	0.66	14.3	60.4	23.7	1.6
11	나는 현재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2.29	0.81	7.2	29.4	48.4	15.0
12	나는 자기 의견이 분명한 사람을 존경한다.	3.18	0.60	28.3	62.4	8.6	0.7
13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3.00	0.70	23.7	53.8	21.6	0.9
14	나는 장래를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2.96	0.60	15.7	64.9	19.0	0.5
15	나는 계획표를 짜면 대개 그대로 실천하는 편이다.	2.50	0.69	5.8	43.5	45.3	5.3
16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안돼, 싫어”라는 대답을 하기 어렵다.	2.51	0.82	9.7	42.0	37.4	10.9
17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주의 깊게 듣는 편이다.	3.14	0.60	24.9	64.8	9.6	0.7
18	나는 친구들에게 솔직히 나 자신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2.96	0.75	20.9	58.6	15.6	4.9
19	때때로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다.	2.69	0.72	9.3	56.5	28.1	6.0
20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 할 때가 많다.	2.14	0.82	4.4	28.3	44.6	22.7
21	다른 사람들이 권고해도 내가 싫은 일은 안 한다.	2.62	0.69	8.6	48.4	39.8	3.3
22	나는 내 약점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다.	2.81	0.75	16.2	53.4	26.0	4.4
23	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2.99	0.67	21.1	57.5	20.4	0.9
24	우리 집안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다.	3.28	0.60	35.7	56.8	7.2	0.2
문항전체 신뢰도(Alpha)		Cronbach의 알파 = 0.844					

## 4) 신앙적 가치관 분석

학생들의 신앙적 가치관에 대한 질문은 총 10개의 문항으로 살펴보았다. 각 문항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60%내외로 나타났고, 모르겠다 20%내외, 아니오 20%내외로 나타나 기독교 대학 학생들의 신앙관을 볼 수 가 있다. 분명한 신앙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비율은 60%정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 5) 기독교 정체성 분석

기독교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의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문항 신뢰도는 cranbacn 알파 0.929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4점 리커트척도로 조사하였다.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다’로 평균 3.01(SD=0.92)이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 평균 2.88(SD=1.82), 그 다음이 ‘신앙은 나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와 ‘말씀, 기도, 찬양의 생활은 신앙생활의 필수적 사항이다’로 각각 평균이 2.84(SD=1.03), 2.81(SD=1.06)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신앙적 가치관에 대한 질문

번호	항 목 내 용	M	SD	비율(%)		
				예 ①	아니오 ②	모르겠다 ③
1	나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았다.	1.63	0.83	59.7	17.7	22.6
2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1.60	0.81	60.6	18.6	20.8
3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1.58	0.81	62.5	16.5	21.0
4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다.	1.66	0.84	58.2	17.5	24.3
5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1.61	0.79	58.5	22.3	19.2
6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는다.	1.62	0.80	58.2	21.3	20.6
7	나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다.	1.69	0.82	53.9	23.4	22.7
8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1.62	0.82	60.0	18.0	22.0
9	천국과 지옥은 있다.	1.53	0.81	67.5	12.3	19.9
10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다.	1.83	0.91	51.1	15.1	33.8
문항전체 신뢰도(Alpha)		Cronbach의 알파 = 0.971				

〈표 7〉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관한 질문

번호	항 목 내 용	M	SD	비율(%)			
				매우 그렇다 ④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②	전혀 그렇지 않다 ①
1	신앙은 나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2.84	1.03	32.9	30.8	23.5	12.8

2	신앙생활은 나에게 기쁨을 준다.	2.72	1.02	26.8	33.9	24.2	15.2
3	나의 신앙은 내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71	1.03	27.4	31.5	26.0	15.0
4	말씀, 기도, 찬양의 생활은 신앙생활의 필수적 사항이다.	2.81	1.06	32.9	31.0	20.1	15.9
5	말씀은 항상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2.76	1.05	30.4	31.3	22.5	15.8
6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1.92	0.87	7.2	12.9	45.1	34.8
7	하나님은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한다.	1.71	0.74	1.9	11.6	42.2	44.3
8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	2.88	1.82	35.0	25.7	23.8	15.2
9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은 변화되었다.	2.71	1.06	29.9	27.1	26.8	16.2
10	앞으로의 내 삶에 대해 불안하다.	2.02	0.84	3.8	24.4	41.7	30.1
11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2.54	0.94	16.4	36.7	31.7	15.2
12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2.26	0.87	10.9	22.0	49.6	17.5
13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2.71	0.89	19.9	41.0	29.4	9.7
14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다.	3.01	0.92	33.6	42.6	14.9	9.0
15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 적이 있다.	2.73	0.95	23.7	37.2	27.5	11.6
16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한 적이 있다.	2.69	0.97	23.8	34.0	29.7	12.6
17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2.63	1.03	24.2	31.6	27.6	16.6
문항전체 신뢰도(Alpha)		Cronbach의 알파 = 0.929					

## 2. 조사 응답자의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 자아정체성 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자아정체성에서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의 자아정체성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유의확률  $p < .01$  수준에서의 유의미한 차이이다.

〈표 8〉 연구대상자에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성, 기독교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차이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자아 정체성	남학생	150	2.86	0.33	2.70	430	0.007*
	여학생	282	2.80	0.33			
신앙적 가치관	남학생	147	1.73	0.78	1.867	422	0.063
	여학생	227	1.59	0.71			
기독교	남학생	147	2.74	0.76	-0.826	422	0.409

정체성	여학생	277	2.81	0.68			
-----	-----	-----	------	------	--	--	--

\*p<.05, \*\*p<.01, \*\*\*p<.001

기독교대학에서의 성경과목 유무에 따른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신앙적 가치관과 기독교 정체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앙적 가치관은 성경과목이 있는 경우 1.52의 평균값을 보였고, 없음이 2.05의 평균값으로 없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독교 정체성은 성경관련 과목이 있음이 2.92, 없음은 2.32로 성경관련 과목이 있는 경우 기독교 정체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성경관련 과목 유무에 따른 자아정체성, 기독교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차이

	성경과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자아 정체성	있음	344	2.82	0.33	-1.117	417	0.265
	없음	75	2.87	0.31			
신앙적 가치관	있음	337	1.52	0.70	-5.841	409	0.000***
	없음	74	2.05	0.71			
기독교 정체성	있음	337	2.92	0.67	7.121	409	0.000***
	없음	74	2.32	0.60			

\*p<.05, \*\*p<.01, \*\*\*p<.001

학년에 따른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결과 학년은 유의확률 p<.0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정체성과 신앙적 가치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아정체성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아정체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고, 신앙가치관에서는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통계적 사후검정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표 10〉 학년에 따른 자아정체성, 기독교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차이

	학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자아 정체성	1학년	83	2.74	0.28	4	2.909	0.014*	1학년 <3학년, 4학년
	2학년	135	2.80	0.30				
	3학년	133	2.88	0.36				
	4학년	75	2.89	0.35				
	기타	6	2.89	0.21				
신앙 가치관	1학년	82	1.57	0.70	4	2.735	0.019*	사수검증 수행하지 못함
	2학년	133	1.80	0.80				
	3학년	131	1.60	0.71				
	4학년	72	1.52	0.66				
	기타	6	1.10	0.12				



기독교 정체성	1학년	82	2.79	0.65	4	1.601	0.158
	2학년	133	2.73	0.64			
	3학년	131	2.78	0.76			
	4학년	72	2.82	0.77			
	기타	6	3.41	0.47			

※ 기타: 대학원 생 및 휴학생, \* p<.05

다음은 대학이념과 가치에 따른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학이념과 가치는 학생의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 정체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값은 p<.001수준에서 각각 7.436, 30.327, 46.125이다. 대학이념과 가치에 따라 자아정체성, 신앙가치관, 기독교 정체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즉, 대학이념과 가치의 영향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학생들의 자아정체성과 기독교 정체성 형성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신앙적 가치관에는 반대의 연구결과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표 11〉 대학이념과 가치에 따른 자아정체성, 기독교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차이

	대학이념의 영향 정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자아 정체성	매우 그렇다	70	2.99	0.38	3	7.436	0.000***	①>②,③,④
	조금 그렇다	119	2.78	0.26				
	보통이다	127	2.80	0.31				
	그렇지 않다	101	2.81	0.34				
신앙 가치관	매우 그렇다	70	1.24	0.53	3	30.327	0.000***	①,②<③ ①,②<④
	조금 그렇다	118	1.32	0.57				
	보통이다	123	1.77	0.75				
	그렇지 않다	100	2.03	0.72				
기독교 정체성	매우 그렇다	70	3.24	0.67	3	46.125	0.000***	①>② ①,②>③,④
	조금 그렇다	118	3.07	0.57				
	보통이다	123	2.72	0.61				
	그렇지 않다	100	2.27	0.60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 p<.001

성경과목의 영향 정도에 따른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경과목의 영향정도는 p<.001수준에서 학생의 자아정체성 (F=6.098), 신앙적 가치관(F=13,564), 기독교 정체성(F=24.030)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성경과목의 영향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학생들의 자아정체성과 기독교 정체성 형성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신앙적 가치관에는 반대의 연구결과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표 12〉 성경과목의 영향정도에 따른 자아정체성, 기독교 자아정체성, 신앙적 가치관 차이

	성경과목 영향정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유의확률	사후검증
자아 정체성	매우 그렇다	69	3.00	0.33	3	6.098	0.000***	①>②,③,④
	조금 그렇다	130	2.76	0.33				
	보통이다	116	2.80	0.27				
	그렇지 않다	98	2.82	0.34				
신앙 가치관	매우 그렇다	68	1.23	0.52	3	13.564	0.000***	①,②<③ ①,②,③<④
	조금 그렇다	127	1.34	0.61				
	보통이다	115	1.71	0.72				
	그렇지 않다	97	2.14	0.68				
기독교 정체성	매우 그렇다	68	3.39	0.57	3	24.031	0.000***	④<③<②<①
	조금 그렇다	126	3.05	0.56				
	보통이다	116	2.68	0.59				
	그렇지 않다	97	2.26	0.57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 p<.001

### 3.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다음으로는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독교 자아정체성의 평균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사항과 교과목의 각 문항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가 무엇인지를 밝혀보았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 다중공선성의 기준을 벗어나는 변수가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무시해도 되었다.

〈표 13〉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beta$	t값
성별	.068	.048	1.098
학년	.045	.069	1.636
경건회 시간	-.035	-.077	-1.677
성경관련 과목 유무	.192	.103	-1.987*
학교이념부합정도	-.088	-.119	-2.001*
교육목표의 교육과정의 영향정도	-.007	-.011	-.166

교육목표의 구체화 정도	.086	.129	1.929
성경과목의 기독교 자아정체성에의 영향정도	-.183	-.274	-3.831***
일반교과목의 기독교 자아정체성의 영향 정도	.111	.150	2.546*
대학의 이념과 가치의 자아정체감 도움정도	-.293	-.421	-6.254***
대학의 이념의 기독교 정체감 영향 정도	.028	.043	.578
기독교대학이라고 느끼는 부분	.002	.005	.116
교목실 활동	.040	.074	1.221
동아리 활동	-.060	-.111	-2.117*
교수·직원의 성경적 가치관으로서의 지도정도	-.035	-.062	-.962
전공학과와 신앙의 통합정도	-.032	-.047	-.815
학문 지도 교수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 정도	.011	.019	.283
상수=4.105	F=15.001	R <sup>2</sup> =.427***	

\*p<.05, \*\*p<.01, \*\*\*p<.001

독립변수들을 동시입력 방식으로 통계처리 하였을 때 표 13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R<sup>2</sup>는 결정 계수로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어느 정도로 설명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R<sup>2</sup>의 값이 .427이므로 종속변수인 기독교 정체성에 대해 약 42.7%정도 설명력이 있다. 다중회귀식의 F값은 15.001로 모형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말해준다(p<.001). 즉, 단계별로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 기독교 자아정체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 중에서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성경관련 과목 유무(t=-1.987, p<.05), 학교의 설립이념 부합 정도(t=-2.001, p<.05), 성경과목의 기독교 자아정체성에의 영향 정도(t=-3.831, p<.001), 일반교과목의 기독교 자아정체성에의 영향정도(t=2.546, p<.05), 대학의 이념과 가치의 자아정체성 도움 정도(t=-6.254, p<.001), 동아리 활동(t=-2.117, p<.05)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로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정체성에는 대학의 이념과 가치, 성경과목의 기독교 정체성에의 영향정도, 일반교과목의 영향, 동아리 활동, 학교의 설립이념 부합 정도, 성경관련 과목의 유무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대학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확고히 심어줄 교과목의 구성과 교수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자아정체성을 검토하여 오늘날 기독교대학의 학생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자기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기독교대학이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만큼 확고히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며, 이러한 기독교대학생의 자아정체성 연구는 기독교대학이 존립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그 나아갈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기독교대학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형성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인가’하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고백과 정체성이 필요하다(Temple, 1956). 기독교대학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고백과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점차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실천에 옮기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대학생의 자아정체성은 삼위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교양과 전공의 기독교적 가치관, 신앙과 학문의 통합, 졸업 후 사회에서 맡은 자신의 역할 등의 전생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자아정체성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자의식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신이 맡은 일에서의 성실함에 그대로 배어져 나오는 것이기에 스스로가 정립해 가야 할 사항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자아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독교대학의 기독교적 관점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신앙가치관,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기독교학교가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신앙교육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충족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대학의 본질적 역할은 기독교적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어떻게 교육과 연결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성경과목, 학교의 이념과 가치는 학생의 자아정체성 및 신앙가치관, 기독교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노력이 절대시된다. 이때에 성경과목이 있다고 해서 체 구실을 다했다는 생각을 해서 는 안 된다.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의 삶으로의 적용이 그대로 배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 기독교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며, 기독교대학은 교과목을 통해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을 이끌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성경전체에서 흐르는 전경을 볼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가 세워지며 각각의 전공은 그것을 우리 일상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가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신앙적 가치관 형성이 본 연구결과 60%정도이며 각각의 변수들의 영향력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신앙적 가치관은 기독교 정체성이 정확히 확립될 때 빠르게 지니게 되는 것이므로 기독교 대학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기독교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빠르게 교육하고 지도할 교수, 교육방법, 교육목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무엇보다 교육을 담당하고 가르치는 교수들의 신앙관이 든든히 서야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학교 수준 밖에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할 수는 없기에(두안 리트핀, 2011),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교수에 대한 지원도 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들의 다양한 학문 활동에 성경적 지식과 성경적 이해를 가지게 해야 하며 자신의 전공과 신앙을 연계할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인간과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창출해 내야 할 진정한 인간-문화 공동체여야 한다. 그를 위해 기독교대학에서 올바른 교육과 활동을 통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며 그 가치들이 실현되도록 해야한다. 진정한 정체감이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신 것을 고백하며,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성 안에서 이루어진다(최조웅, 1999).

앞서서도 제시하였듯이 기독교학교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의미를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이 성경의 실체를 만나고, 그 안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더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 실천적 차원이 전인적으로 통합되는 교육과정 및 교수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될 필요가 있다.

기독교 대학의 교육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성을 계발하는 것임을 회복하고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가치는 구제나 복지와 같은 사회사업이나 기관이 아니다. 본질은 그리스도를 닮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두안 리트핀 교수(2011)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독교 대학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방법은 우리의 교육적 소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그리스도를 위해 나아가 세상의 모든 방면에서 말과 행위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졸업생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졸업생들의 중요한 역할은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잘 교육받은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정의를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로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수많은 학교 중에서 기독교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는 기독교대학의 존재이유를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 것인가?

## 참고문헌

- 강영택(2012). 초기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 비교 고찰-배재, 경신, 대성, 오산학교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7(2), 7~37.
- 강희천(2001). 기독교대학과 교양교육, 신학논단, Vol 29, 349~375.
- 김미경(2011). 기독교대학의 기독교정체성 확립을 위한 삶의 접근요인과 과정 탐색, 교육과학연구, 42(1), 211~234.
- 김성수, 황창기(1998). 기독교대학의 본질과 사명 - 기독교대학의 교회적 특성.
- 김정우(2009).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 김현숙(2003). 현대사회와 기독교적 자아정체성, 기독교언어문화논집, 17, 147~169.
- 김효숙(2003). 가족지지를 통한 기독교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 두안 리트핀(2011) 제5회 국제 기독교대학 학술대회. 기조강연, 월드뷰, 8월호.
- 문채욱(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가정의 영향에 관한 연구: Erik H. Erikson의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변세권(2001). 기독교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 신영재(2009). 기독교소년의 정체성 상실과 회복에 관한 연구-교회 방과 후 교육의 이해와 적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 아더홈즈(1990). 기독교대학 이념 IDEA CHRISTIAN COLLEGE, 기독교대학의 이념,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출판부, 박진경 역
- 윤성권(2009). 부산 기독교 학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주희(1985). 한국 중등기독교학교에 대한 연구-역사적 고찰 및 종교교육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이명호(2003).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한국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 이수남(2009). 청소년기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회심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이원규(2003). 21C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학대학원.
- 정명희(2010).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역할모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대학원.
- 조기민(2009).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통전적 기독교 청소년교육.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조용훈(2003). 기독교대학 정체성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기독교학문 춘계학술대회, 특집논문
- 채병준(2012).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진로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Self-identity on Internet over-use :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daptability of School Life).
- 최조웅(1999). 대학의 신앙. 문화화를 위한 제언.
- 한윤식(2006). 기독교대학으로서의 한동대학교, 그 가능성과 구현방안, 통합연구 16(2), 225-251.
- 홍정근(1993). 기독교학교의 성격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 Temple, W. (1956). *Nature, Men, and God*. London: McMillan Co.